

대한세포병리학회지: 창간부터 학술지 통합까지

진소영 · 강창석

대한세포병리학회

The Korean Journal of Cytopathology: From Foundation to Unification with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So-Young Jin and Chang Suk Kang

The Korean Society for Cytopathology, Seoul, Korea

“대한세포병리학회지”가 1990년 대한세포병리학회 공식학술지로서 창간된 이래 2008년 19권 2호를 마지막으로 19년간 세포병리학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전문학술지의 역할을 마감하고, 2009년부터 대한병리학회 공식학술지였던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와 통합되어 양 학회가 공동 발행하는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를 발간함을 축하하며 통합학술지의 제1대 공동편집위원장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학술지가 통합되었다라도 세포병리학에 관한 저술활동은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세포병리학회지”라는 명칭으로 19년간 발간되었던 학술지 역사와 통합학술지 추진배경을 간략히 돌아보고 통합학술지 발간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대한세포병리학회와 대한세포병리학회지

우리나라에서 세포병리학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으며 현재의 진단세포검사는 1950년대 국립의료원과 부산의 스웨덴병원에서 자궁경부질도말 세포검사(Pap도말)가 도입된 것이 최초이다.¹ 이후, 검체가 객담, 소변 및 체액으로 확산되었으나 초기에는 Pap 등급에 따라 진단을 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자궁경부의 종양성 병변의 세포 진단을 조직 진단과 같이 이행성증, 상피내암종, 침윤암종 등으로 쓰기 시작하였다. 서구에서도 임상 의사와 병리의사 간의 진단용어의 일치를 위한 노력의 하

나로서 1988년 “The Bethesda System”이 처음 개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The Bethesda System”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일부 사항을 개정한 “The Bethesda System 2001”을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²

세침흡인 세포검사는 1980년대에 활성화되기 시작되었으며, 영상의학 장비의 발달과 더불어 유방, 갑상샘, 침샘, 림프절 등 표재 장기뿐만 아니라 체강 내 깊이 위치한 장기라도 병소를 정확하게 천자, 흡인할 수 있게 되면서 상당히 높은 진단정확도를 얻게 되었다.

세포병리의 학문발전과 관심 회원 수의 증가에 따라 세포병리 관련 학술 발표가 시작되었으나 모든 학술활동은 대한병리학회 학술대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최초 세포병리 관련 연재발표로서는 1959년 제11차 대한병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복수액 중 악성 종양세포의 세포학적 검색’ (이성수와 윤택구)이 있으며, 최초 초록발표는 ‘세포학적 진단에 대한 검색’ (김상인 등)이 있다.¹

1986년 대한세포병리학회 창립되었으나 그 당시는 공식학술지가 없었으므로 1986년 ‘세침천자 세포학적 검사로 진단된 악성 섬유조직구종’ 1편을 포함하여³ 1991년까지 13편의 세포병리 관련 논문이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되었다. 이에 따라 세포병리 관련 분야에 대한 독립된 공식 전문학술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0년 7월 13일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중달)가 구성되었으며 10월 13일 ISSN 번호(ISSN 1017-0391)를 배정받고 출판사를 고려의학으로 선정하여 같은 해에 대한세포병리학회지 창간호를 발행하였다(창간호 발행일 1990년 6월 30일).¹ 이후 학술지는 연 2회 발간되어 2008년 9월말까지 19권 2호까지 총 38권이 발간되었으며 종설 23편, 원저 173편, 증례 289편 등 총 485편의 세포병리학 논문이 게재되었다.

창간이래 역대 편집위원의 노력으로 학술지의 내용 뿐 아니라 투고원고의 논문 접수, 심사과정, 저자수정 및 게재 승인의 투고

Corresponding Author

So-Young Jin, M.D.
Co-Editor-in-Chief,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Department of Pathology,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22 Daesagwan-gil, Yongsan-gu, Seoul 140-743, Korea
Tel: 02-709-9424 Fax: 02-790-5820
E-mail: jin0924@hosp.sch.ac.kr

논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학술지 표지도안 수정 및 자구 크기 변경 등 양식을 개선하는 등 질적 향상을 꾀하여, 1999년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주최 제6차 학술지 평가를 받아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 2002년 KoreaMed 국내문헌 검색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대한세포병리학회지” 논문을 1997년 이후부터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사이버학술지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Korea-Med와 대한세포병리학회지 홈페이지 학회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창간호부터 학술지 전문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⁴ 2006년도부터 대한세포병리학회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CrossRef에 가입하여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주관 Synapse사업에도 동참하고 2007년 말 Google Scholar 등 여러 검색엔진을 통해 학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대한세포병리학회지 논문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대외적 수준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대한세포병리학회 회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말 현재 의사회원 600여명, 세포병리사회원 약 400명으로 총 회원 수 1,000여명에 이르는 큰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 중에서도 세포병리학 분야의 큰 몫을 담당하는 세포병리사 회원의 학회 가입은 약 1991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여 1996년 대한세포병리학회 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이루어졌다.¹ 이후 세포병리사 회원도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 발표는 물론 학술지 논문 게재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분화도가 높은 간세포암종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비중양성 병변과의 감별-”을 최초로 세포병리사 회원이 공동저자로 참여하였고,⁵ 2004년 “자궁경부 액상세포검사의 수기 검사법에 대한 고찰-SurePath™ 검사법을 준용한 수기 검사법으로-”에서 세포병리사 회원이 최초로 제1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한 이래⁶ 수 편의 논문에서 세포병리사 회원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학술지 추진배경

활발한 학술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공의 수 감소, 근무 기관 업무량 증가, SCI학술지 게재 논문만을 교원업적으로 인정하는 데 따른 국내 학술지 투고논문 수의 감소 등 여건 악화로 대한세포병리학회지 운영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투고 논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사례보고 대비 원저는 더욱 줄어들었으며 상대적으로 논문게재율은 점차 높아졌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세포병리학회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대한병리학회지를 포함한 국내 타 학회지도 비슷한 실정이었다. 대외적으로는 학회 및 학술지 평가 기관의 평가기준 요건이 강화되면서 대한의학학회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에서 유사 학술지의 통합을 권유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내어 놓았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서 병리의사가 학회 회원의 주 구성원인 대한세포병리학회와 대한병리학회와 함께 양 학회의 개별 학술지를 통합하여 보다 나은 질 높은 하나의 통합학술지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세포병리학회 합동편집위원회에서 국내 타학술지 통합사례를 검토하고 대한병리학회지와 대한세포병리학회지의 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토의를 거쳐 흡수가 아닌 두 학회가 공동 참여하는 통합학술지라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후 양 학회 평의회(대한병리학회: 2008년 5월 15일, 대한세포병리학회: 5월 30일)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통합학술지 명칭을 기존의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대한병리학회지의 권 호 그대로 승계하되, 통합학술지의 표지도안을 새로 디자인하여 대한세포병리학회지와 통합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양 학회의 로고를 학술지 표지에 함께 표시하고 발행인과 편집인은 양 학회의 회장과 간행이사를 각각 명시하기로 하였다.

“대한세포병리학회지”가 1990년 창간 이래 통합되기까지 19년간 대한세포병리학회의 공식 단독 전문학술지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고, 2009년부터 양 학회의 통합학술지인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라는 명칭의 하나의 통합학술지로 발행됨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회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간의 원로회원의 노고나 업적이 학술지통합으로 인해 세포병리학에 관련한 학문 발전과 대내외 위상을 높이고 국제 수준의 논문 투고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통합학술지발간에 따른 제언

학술지통합 추진 논의 중 2008년 5월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가 SCI-expanded학술지로 선정되었다.⁷ 이러한 일은 양 학회와 학술지의 발전과 운영에 매우 기쁜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앞으로 통합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SCI-e 등재 논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세포병리 논문이 SCI-e 선정학술지에 게재됨을 단순히 기뻐해야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크고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겠다.

첫째, 대한세포병리학회로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의 학회 평가 기준 중 학술지 영역의 최소 연간 논문 편수가 여전히 30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로 통합된 이후에도 격월로 발간되는 잡지에 세포병리관련 논문이 최소한 5편 이상씩 꾸준히 게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나 학술진흥재단과 같은 학술지평가기관에서 학술지평가를 통합학술지일 경우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여야 한다. 학술지는 통합 발간되더라도 학술지평가시 관련분야 즉 병리와 세포병리 분야로 나누어 따로 평가를 한다. 따라서 세포병리 관련 논문 수 증가 뿐 아니라 내실에도 힘써야 한다. 논문집수, 심사과정, 논문게재승인, 출판 등 모든 과정의 효율화, 신속성, 공정성을 높이고 논문게재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한세포병리학회지는 이제까지 원저 대비 증례 편수가 0.6:1 (173:289)이었음을 상기하면 앞으로 원저 저술 및 투고에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학술지 수준이 세포병리 분야 회원의 관심 및 참여 저조로 인해 종합 성적이 낮아지지 않도록 서로 “win-win” 전략에 힘써야 한다.

넷째, 논문 작성시 국내 타 학술지 인용 및 영문공동발간잡지인 “Basic and Applied Pathology”의 상호 교차인용 등 인용지수 증가를 위해 건전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⁸

다섯째, 국제학술지인 “Acta Cytologica” 등에 활발히 논문을 투고하고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에 실린 세포병리 관련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세포병리학회 가입, 참석 및 학술활동의 증가를 위한 꾸준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앞으로 세포병리학 논문 수 증가, 논문의 질적 향상 및 원저 투고 증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전국화 및 국제화 등에 힘써 국내 및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인용지수를 늘리고 해외 연구자의 세포병리관련 논문투고를 유도하여 통합논문의 기본 취지인 질높은 학술지 발간을 위해 양 학회 회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참고문헌

1.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Society for Cytopathology. The Overview of the Korean Society for Cytopathology. In: The Korean Society for Cytopathology. The History of the Korean Society for Cytopathology: 1986-2005. Seoul: Academia, 2007; 15-29.
2. Hong EK, Nam JH, Park MH. The Bethesda System 2001 workshop report. Korean J Cytopathol 2001; 12: 1-15.
3. Park MH, Hong EK, Lee JD. Aspiration biopsy cytology of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Korean J Pathol 1986; 20: 332-5.
4.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Society for Cytopathology. The Activity of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Korean Journal of Cytopathology. In: The Korean Society for Cytopathology. The History of the Korean Society for Cytopathology: 1986-2005. Seoul: Academia, 2007; 106-24.
5. Khang SK, Lee SS, Cho KJ, Ha HJ. Cytologic features of well differenti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Korean J Cytopathol 1997; 8: 1-10.
6. Park JM, Jang JW, Jang JW, Lim SY, Lee JG, Suh IS. Evaluation of the manual method of liquid-based uterine cervicovaginal cytology -by the manual method based on SurePath™ Methodology. Korean J Cytopathol 2004; 15: 86-91.
7. Seo JW, Cho KJ, Kim HK, Kang DY.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is selected for coverage in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and journal citation reports by Thomson Reuters. Korean J Pathol 2008; 42: 131-3.
8. Seo JW, Kang DY, Kim HK, Avila JM. Welcome to Basic and Applied Pathology (BAAP)! Bas Appl Pathol 2008; 1: 1-3.